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FAITH
BY
HEARING



ARM

Audio Recordings Mission

THE MEMBER OF GRN

복 음 음 반 선 교 회

ARM은 Gospel Recordings, LRI와 연합하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부족어로 된 음반을 만들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7호

1997년 9월호

■ 발행처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송파구 오금동 94-3 성진 B/D
Tel 408-6959 Fax 430-4353
Email : armcord @ uritel.net
http : //www.uritel.net/~armcord

■ 발행인 / 조 관 호(Barnabas)

■ 편집인 / 정 정 희

■ 정기간행물등록

1996.2.21 등록번호 마2540

■ 제 작 / 은혜문화(443-9305)

목 차

- 조이칼럼 /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을 때
- 선교비전 / AD 2000년을 향하여
- 선교현장소식
- 선교보고 / 정아브라함 선교사
- 네팔 현장녹음훈련학교
/ 훈련생 간증
- 예수필름과 동역
- 광고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을 때

기뻐하라!



조이 리더호프

Gospel Recordings 설립자

나는 많은 세월을 혼두라스 선교사로 다른 선교사들과는 멀리 떨어진 산지에서 보냈다. 일은 벌어지고 있었다. 많은 영혼이 구원 받았고 죄의 길과 악한 일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적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핍박을 끊임없이 선동하였다.

그 때 나는 부차적인 원인들을 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기쁘게도 항상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법을 배웠다. 물론 고심한 적도 자주 있었던 것을 실토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더 풍성한 축복과 더 많은 열매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 이용될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도 있었다. 나는 권력도 없었고 정의 구현을 하는 세상적인 어떤 형태나 보호 기구에 은신할 만한 아무런 연줄도 없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였다. 다음 말씀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사 64:4,5)

그 후로 이 말씀은 줄곧 내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는 자를 위해 일하신다.

내가 찬양하며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아왔다. 어떠한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해도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기도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쁨 속에서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명심하라.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을 때 크게 기뻐하라!

향후 3년간의 비전과 목표

AD 2000

마지막 대추수

세계선교의 초점이 국가나 민족개념에서 종족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는 대 수확기에 있다고 느낀다. 우리도 그 한부분으로 동참하고 싶은 것이다. GR은 작은 선교단체이긴 하지만 그 사역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창세 이래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속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국제 복음음반선교회를 일으킨 것이다.

지난 10월 영국 위클리프 센터에서 각국의 복음음반선교회 대표들이 모인 것은 가장 복음이 미치지 못한 종족들에게 먼저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서는 위원회 멤버가 영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놀랍게 공급하셨다. 총회를 준비할 때 여행과 숙박문제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큰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풍족히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에 우리는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총회에서 앞으로의 세대에 나아가야 할 국제 복음음반선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다. 헨리 블랙커비가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에서 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내용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계획을 당신이 알도록 계시하신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동역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가 중요하다."

참으로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총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이다. 총회가 끝났을 때 우리의 바램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일 치 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총회에서 일치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하고 나누고 웃고 울었다. 매일 필립

AD
2000
년을
향하여

투투가 인도한 경배와 찬양은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매일 저녁마다 각 지부의 영감에 넘치는 사역보고를 듣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에 대해 일치감(Unity)을 가지고 처음에는 불투명한 의제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한 길로 인도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참으로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 배경, 힘과 능력을 각자에게 부여주셨다. 국제 복음음반선교회는 각 지부가 상호 보충이 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주요한 도전

우리가 모였을 때 앞으로 당면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 어떻게 소수의 레코딩 팀을 가지고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2. 미복음화 지역에 카세트 배포사역(Distribution)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3. 복음음반선교회의 음반으로 어떻게 힌두, 모슬렘, 불교권을 공략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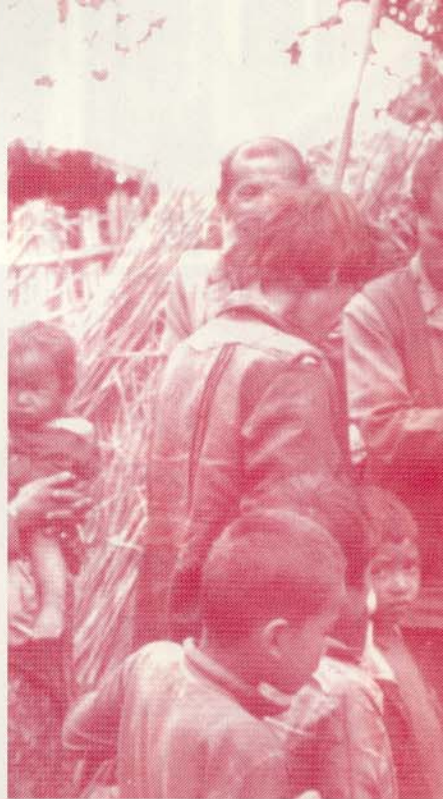
4. 우리의 사역을 위해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할 중보기도자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5.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새로운 세대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6. 어떻게 새로운 지부를 견고하게 하고 무장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사에 참가하여, 우리 모두는 도그 암스트롱(케냐)이 음반사역의 전반적인 단계에서의 비전과 탁월성을 제시한 보고서에 큰 도전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잘 훈련된 지도자, 장비가 잘 갖추어진 지부, 타 선교단체와의 의미있는 동역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우리가 주로 다뤄야 했던 주요 이슈였다.

꿈을 넘어서

총회의 도전중의 하나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진취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4가지 기초적인 것이 있다.

1. 하나님께서 국제 복음음반선교회에 함께 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음반선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 이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 명백한



이해가 없는 이상,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2. 비전이 현실화 되도록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전략과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좋은 교제와 토론을 즐기고 돌아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3. 어떤 종류의 구조가 더 효과적인 사역적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조직은 최대한의 사역 효과를 위해서 조정되어 유연해야 한다.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지만 묶어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4. 사역에 어떤 사람이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며 여



리 부분에서 지도력과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간구해야 한다.

국제 복음음반선교회의 비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오디오 사역에 관련하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음반을 통하여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동역한다. 우선 권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부의 노력과 힘을 조정하고 연결하기 위해 국제 복음음반선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믿는다. 국제 복음음반선교회 네트워크는 이를 돕는 사역을 할 것이다.

1. 카세트, 원본 카세트, 플레이어, 오디오 시청각 자료 등의 제작과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2. 모든 레코딩 팀과 센터에 유용한 새로운 음반과 대본을 만든다.
3. GRID가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언어 정보를 통합한다.
4. 같은 마음을 품은 그룹과 함께 긴급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나눈다.
5. 기술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보조와 표준을 제공한다.
6. 현장녹음선교사 훈련, 지도자 훈련, 기술적 훈련, 컴퓨터 기술, 장비 구입 등 많은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다.

국제 복음음반선교회가 좀 더 효과적인 네트워킹이 되고, 각 센터의 생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각각의 센터 사이에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서약한다.
2. 우리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승인된 표준과 과정을 따르고 사역과 재정의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한다.
3. 새로운 지부의 사역을 돕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동의한다.
4. 지속적으로 국제 비서와 실행위원들에게 사역활동의 정보를 제

공할 것을 동의한다.

5. 우리는 최대한의 초점을 우선순위의 성취에 맞추어 모든 종족어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진력하는데 동의한다.
6. 우리는 회원비로써 국제 복음음반선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과 국제 복음음반선교회의 규례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지침서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어장벽을 뛰어 넘어 귀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현장 녹음 선교사를 일으키시도록 함께 기도하자.

현장 녹음 선교사는 소수 언어에 전문화된 녹음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녹음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바라보며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며, 미전도 언어 종족이 살고 있는 외딴 지역으로 여행하며 그들의 토속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한다.

전문화된 미전도 종족 현장 녹음 사역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ARM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02-408-6959)

선교현장소식

브라질 인디언

택하시고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다.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루어진 말씀은 바로 다음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5:16)

브라질 사모크레노델리에 파송된 한 선교사는 19년 동안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던 종족을 발견했고 보고했다. UFM 국제 선교회는 끝이 없는 전쟁과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듣기 원하지 않는 인디언들 때문에 1976년에 그곳에서 철수해야만 했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느라 바빴기에 복음의 선교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사모크레노델리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주 낮이 익었습니다. 1966~68년 사이에 제가 들려준 복음음반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중의 한 명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세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건고히 붙들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페드로, 말리아시, 파팔리오, 아드리아나, 수잔나, 오안나도 그러합니다.’

대화 중에 한 남자가 끼어들어 자기와 카를로스는 아직도 수동식 카세트 플레이어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테이프를 듣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19년 동안이나 그들은 Gospel Recordings의 Tape Talk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

상자가 말을 한다!

“상자가 말을 한다! 와서 들어 봐, 와서 들어 봐! 우리 말로, 발란타어로 말해!”

매일같이 하던 밭 가는 일을 멈추고,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낯선 젊은 사람과 그의 이상한 말하는 상자-카세트 녹음기-주위로 모여 들었다. 그런데 이럴수가? 그것은 못알아 듣는 외국말이 아니었다. 그건 발란타어였다. 난생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세네갈의 남쪽 국경 지역의 발란타라고 하는 외딴 종족을 위해 일해 온 새부족 선교회(New Tribe Mission)의 한 사역자는 몇 년간의 수고 끝에 그가 경험한 전율적인 보고를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교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 부락의 말로 된 복음과 성경공부를 녹음했던 것이다.

이제 마을에 15명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발란타어는 세네갈의 37개 언어 종족중 한 언어로서 대부분 문맹자이다.

복음반선교회는 이 중 29개를 녹음했다. 카세트로 녹음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들 종족 가운데 “오디오 카세트 교회”가 뿔쳐나갔다. 녹음된 오디오를 통하여 목사나 현지 사역자가 전혀 없는 수십 개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을 배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뒤를 이어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뒤따를 수 있다.

세네갈은 이슬람에 속한 서부 아프리카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네갈은 복음에 활짝 열려있는 상태이다.



‘티벳에서의 간증’

더 알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티벳 유랑민이 말했다.

“어서 앉으세요. 뭐라도 좀 드시구요.”

이제 새로 친구가 된 한 사람이 우리를 그의 가정으로 초대했다.

그는 장미빛 얼굴을 가진 한 여인에게 장가든 두 남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합해 4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식사를 끝낸 후, 나는 가방에서 복음서를 꺼냈다.

나는 그에게 이걸 예수님에 관한 책이며 중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더 알기를 원했고 나는 그에게 캄 티벳탄(Kham Tibetan) 방언으로 된 카세트를 주었다. 또한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구원의 도를 테이프를 들으며 볼 수 있는 오디오 그림차트를 그에게 주었다. 내가 페이지를 넘기자 마자 그들은 그림차트에 찰싹 달라붙었다.

결국 우리가 떠나기 전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우리의 티벳 친구는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도록 영접했다. 우리가 떠날 때도 그는 그림차트를 꺼내어 가족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었다.



필리핀 수바넨 종족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Subanen(수바넨) 종족에서 원로 맹인이자 존경 받는 마을 추장은 기쁨으로 이렇게 증거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의 언어로 복음을 듣다니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자기네 외딴 마을을 방문해주는 선교사가 없어 자기 부족이 아직도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슬퍼했다.

그러나 이제는 Gospel Recordings(복음음반선교회)의 카세트가 오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 들일 것이라고 추장은 믿고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는 그들의 모국어로 들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방문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동식 카세트 플레이어(Tape Talk)를 돌리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통역해 주지 않아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장은 이렇게 외쳤다.

Mindanao(민다나오)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동안에도,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다. 두렵고 어두운 영적 흑암속에 있는 이 소수 종족이 그들의 인생의 시간이 다가고 소망없는 영원에 부닥치기 전에 나아가는 것이 Gospel Recordings의 부르심인 것이다.

선교지간증

제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음반선교회에 카세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몰려와 우리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카세트를 듣고 기적이 일어났으며 매일 사람들은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음의 간증들은 이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언제나 부두교 우상을 섬기며 능력있는 주술의사(Witch Doctor)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크파도노 목사님이 항상 우리 마을을 방문하셔서 결국 저는 귀 선교회의 복음음반을 통해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마약, 주술, 독극물 등에 돈을 사용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분은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前 우상 숭배자〉

“저는 Ewe(이웨)언어로 된 귀 선교회의 테이프를 듣고 1주일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저는 귀 선교회가 저희 지역 방언으로 더 많은 음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귀 선교회의 음반이 저희에게 보내졌을 때 저희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대였을 때부터 앓아가버린 12년이란 세월을 새롭게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 마지막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섬기려는 갈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음음반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의 격려되어 있는 이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음반을 보내주며 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쟁론을 피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문화에 맞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동역자
사이프리안 크파도노 드림

어룬촌 언어의 레코딩을 마치고

정 아브라함 선교사

우리 일행은 다우르족 청년 한사람과 조선족 청년 한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었다. G역에서 10시경에 출발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기위하여 중간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했다. 하룻밤을 꼬박 기차에서 보내고 다음 날 아침 6시나 되어야 도착할 예정이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아 있는 형제들은 꼭 가야 되냐고 물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의 사람들은 사냥하는 직업이라 각각의 집에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보면 총으로 겨누고 심지어 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라 대낮에도 술을 먹고 시비를 걸기가 쉽상이라는 것이다. 영하 4~50도를 내려가는 추운 지방이라 술로 추위를 이기고 술기운에 큰 사고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외부인이 라면 무척이나 경계하는 지역인데 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 곳으로 불러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 종족의 사람이 우리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왔었다. 그 때 그들 중에서 녹음할 수 있다고 예상되었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마음이 심란하여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을 읽게 되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2-24)

이 말씀을 묵상중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꿈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로마에까지 가야만 된다는 확신이다. 그는 당시의 땅끝이라 생각되던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행 18:21), 로마에도 증거하라(행 23:11)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맘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계 7:9)”

그렇다면 그들 민족에게도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말로된 성경이 없다. 그들 민족은 단지 7천 명밖에 안되는 소수 민족이다. 성인중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언제까지 그들이 중국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이 민족이야말로 복음메시지가 담긴 오디오 테이프가 그들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야만 할 것이다. 아침에 묵상한 바울의 고백을 통한 은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게 되었고 나의 마음은 그 민족도 하루 빨리 주님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소망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어룬촌의
전통복장을 입은 여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3-15)

이 종족이 바로 중국 300여 개의 언어 그룹중의 하나인 어룬쑤 종족인 것이다. 어룬쑤 족은 원래 깊은 산에서 살면서 사냥하던 민족인데 정부에서 땅을 주고 집을 지어 주어 마을을 이루어 살도록 한 곳이다.

그러나 그들이 본디 사냥하던 민족이라 술을 좋아하고 사냥기가 보통이 아니라 자기네끼리도 총을 쏘고 도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하는 예가 최근에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선교사의 헌신의 결과로 이제 이곳에도 크리스찬 가족이 몇 가족이 생겼으며 몇 명의 젊은 이들은 단기 성경학습도 마치게 되었다. 그들이 수 개월 간 학습을 마치고 돌아가자 동네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어른들이 자기네 자녀들을 서로 학습을 보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기도 한 곳이다.

일행을 실은 기차는 밤을 새워 영하 40도를 밑도는 강 추위를 뚫고 어룬쑤 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달려 새벽 6시가 되어 한 조그만 시골 역에 내려 놓았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매서운 추위였다. 새벽에 부는 시베리아로부터의 맞바람에 부딪혀 추위는 살을 파고 들었다. 물론 7월이나 옷을 꺼입고 단단히 준비하니 몸은 견딜만 하였는데 가리지 못한 얼굴은 매서운 추위를 그대로 맞았다. 얼굴을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였던 것이다.

몇백 미터를 걸어 초대소에 도착할 때까지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살려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육체를 갖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매서운 바람으로 뽀뽀 얼어붙은 내 얼굴과는 반대로 내 마음은 이 땅 위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주님의 또다른 백성을 만나는 기대감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외국인이라 금방 눈에 뜨일 수 있기 때문에 다루르 청년과 조선족 청년만이 어룬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녹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데리고 오기로 했다. 나는 네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을 잡아놓고 형제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형제들은 어룬쑤 형제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 들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세 사람은 몇 달 전에 예수님

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어룬쑤 사람들 중 몇 안되는 청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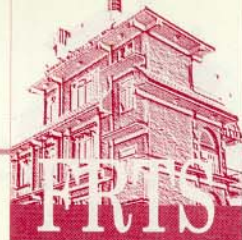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자 녹음을 하던 K형제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 나갔다. 조선족 형제가 달려가 보니 K가 말하기를 자기가 대본을 읽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이 청년 내부에서 이제까지 사로잡혀 있던 흑암의 세력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기를 몇번이나 반복하며 초대소에서의 안전문제를 신경쓰느라 우리의 녹음은 다른 언어를 녹음할 때와는 달리 초긴장 상태였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르침' '바른 길의 선택' 등 40여분 정도로 4가지 메시지의 녹음을 마칠 수 있었다. 녹음을 마칠 때 쯤 되니 이 청년이 자기네 민족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날 밤 우리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 어룬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갖고 자기 집에 와서 집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해 달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날 밤 늦게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그의 집을 방문했고, 10여 명이나 모인 어룬쑤 족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덤으로 받았다.

이제 이 민족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음을 본다. 이 민족 언어로 된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들려질 것이다. 우리가 어룬쑤 언어를 알지 못해도 그의 말로 된 테이프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한 민족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테이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3-15)



네팔 현장 녹음훈련학교

훈련생 간증

FRTS 제1기를 마치면서

나는 1997년 3월 5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네팔 FRTS에 훈련을 받으러 갔다.

훈련 학교에는 인도 형제 2명, 부탄 형제 1명, 한국 자매 3명, 이렇게 6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네팔 현지인 형제와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다.

비록 주 안에서 한집 식구된 대가정이었지만 서로 여지껏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언어마저 다 틀려서 의사소통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보시기만 하는 주님이 아니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기도으로써 풀어 나갔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기도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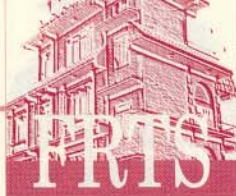
네팔은 산의 나라라서 물이 많이 부족했다. 나라에서 주는 수도물은 겨우 밤이나 해먹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처럼 많은 식구들이 있는 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셨다. 학교 건물을 위해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신 조 장로님과 다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우리 학교 마당 안에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샘을 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부담없이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물을 길어갔다. 그래도 생명의 샘은 쉬지 않고 계속 솟아 나왔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네팔에서 생활하면서 물이 없는 세계가 어떤지를 가히 상상 할 수 있었고 물의 중요성을 더 심각하게 느꼈다.

4주간의 수업 시간 동안에 현지에 가서 녹음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고서 우리는 OUT-REACH 네팔 중부 산 지역인 BARPAK이라는 곳으로 떠났다. 우리 자매 3명에 네팔 형제 2명이 한 팀이었다. 새벽 6시에 출발하는 LOCAL BUS로 6시간 가서 DLOKA라는 곳에서 내렸다. 도로가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BUS 신세를 질 수가 없어서 좋거나 나쁘거나 자신의 두 다리에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끊임없이 산길을 걸어야 했다.

첫 날에는 햇빛이 사정없이 우리를 지졌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파스한 날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산길을 못가겠습니다. 차라리 흐린 날을 주세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하고 기도했다.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길을 떠났는데 그 때는 날이 어둑어둑 해서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났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8시가 되면서부터 날씨는 흐려졌고, 10시부터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주 동안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잔잔한 빗속에서 산을 타니 너무나 낭만적이고 좋았다. 그런데 오후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얼굴은 땀과 비에 범벅이 되었고 눈을 뜰 수도 없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낭떨어지로 떨어질 뻔 했다. 식은 땀이 등살을 서늘하게 적셨다. 그 때마다 무형의 힘이 발을 꼭 잡아 주었다. 비오는 덕분에 5시까지만 가고 휴식했다.

삼일째는 험한 산을 올라가야 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들어 주려고 마을에서 짐꾼이 왔다. 짐꾼은 네팔에서 흔히 보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보통 100kg 정도 일 수 있다고 한다. 배낭이나 침낭이나 모든 짐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빈 몸으로 올라 갔지만 뻔히 보이는 마을로 올라가는데 오후 내내 걸렸다.



손으로 바위를 잡으면서 올라가느라 손바닥이 부르셨고 가시에 걸려 손이 터져 피가 났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실까? 하나님의 일은 꼭 이렇게 피터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오만가지 생각에 시험이 들 것 같았다. 그럴수록 불평불만도 점점 더 커졌고 더 많아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주셨다.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고생도 아니었고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3일 만에 BARPAK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상상 밖으로 마을은 컸다. 처음에는 정부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과 티베트의 피난민들로 만들어진 마을이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잡히면 안되는 형편에서 찾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가히 상상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2천 여 세대에 7천 여 명의 인구를 가진 큰 마을로 전기도 들어 오고 있었다.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한번 오셨다고 한다. 작은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약 50명 정도 되며 목사님도 한 분 계셨다. 비록 다 찌그러진 건물에서 짚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성도들의 열정과 믿음은 너무나 진실하였다.

원래는 그 교회의 바닥에서 잠자리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할머니가 자기 다락방 2층을 선뜻 내주어서 숙소로 쓰게 했다. 나무로 지었는데 판자 사이로 밖의 전경을 훤히 볼 수 있었고 천정으로는 별 세계가 보였다. 우리가 갔을 때가 마침 장마철이어서 매일 같이 비가 내렸다. 자다가 침낭이 흠뻑 젖는 바람에 잠을 깨곤 했다. 그러나 밖의 마루 바닥에서 자지 않게 한 주님께 참으로 감사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는지 4일 녹음 예정을 2일로 앞당겼다. 꼭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을을 떠났다. 비록 언제 다시 가게 될 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젠가는 우리의 선택에 상관 없이 우리를 다시 그 곳으로 부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아 오는 길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상히 돌보아 주셨다. 길에서 제일 큰 걱정거리는 마실 물

이 없는 것이었다. 피악벌에서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나는데 산길을 오르 내리느라고 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또 갈증이 심하게 나는데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진짜로 돈이 소용없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개울물을 그냥 꿀꺽 들이키려고 했더니 같이 간 네팔 형제가 큰일 난다고 마시지 말라고 했다. 네팔은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정수하지 않는 물은 절대로 입에 대면 안된다. 현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물을 마셔서 별 탈이 없지만 우리는 그 물로 입가심만 해도 금방 배탈이 난다. 한번 끓인 물을 마셨는데도 배탈이 나서 2개월씩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한 병씩 마셨다. 그야말로 독약도 보약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셨다. 우리는 또 한번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아와서 4주 동안은 녹음해 온 Tape를 열심히 편집했다. 학생 6명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고 또 시시때때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자연히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더 없이 큰 사랑 속에서 우리는 FRTS 1기 졸업생으로 모두 졸업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같이 한 사람도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 졸업식에서 모두들 너무나 감개무량하였다. 그 사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고, 서로를 간구할 때마다 얼굴을 돌리신 적 없었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중국 최초의 녹음선교사 J. 한나



Advance FRTS를 마치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하루 전날 우리는 홍콩에서 FRTS의 Advance Course를 시작했다.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도 매일 아침이면 귀신을 쫓기 위해 폭죽을 터트리며 대문 앞에 상을 차려놓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홍콩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었다. 매일 아침 성경공부와 기도로 시작해서 Computer로 Editing하는 과정까지 2주 동안 두 개 언어 메시지의 편집과 음악을 넣어 믹싱하는 것을 배웠었다. 아직 손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들을 더 내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팔에서 배우지 못했던 몇 가지 것들을 숙제로 내 주셔서 연구도 할 수 있게 하셨다.

2주 후 우리는 홍콩에서 J국의 A성 B시로 향했다. J국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신선하고 상큼한 날씨가 아름다웠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어를 녹음해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그의 소개로 A성의 남쪽에 있는 C시로 향했다.

우리는 버스를 이용했는데 무려 27시간이나 가는 장거리 여행이었다. 우리가 소개받은 분은 현지 교회의 여자 장로이었는데 그녀의 도움으로 어느 자매가 H족, J족, F족의 몇 명 안되는 크리스찬 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메세지를 녹음했다. H족의 세 자매들이 아주 지혜롭게 통역하고 녹음하여서 너무나 감사했다.

하루 만에 H족 언어로 녹음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옆집에 화재가 일어났다. 우리 모두가 깊은 잠에서 깨어 급히 녹음장비를 챙겨 피하였다. 우리가 피한 후 10여분 만에 소방차가 불길을 잡았으며 그 후부터 계속해서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화재가 난 집을 포함하여 집 세 채가 모두 다 타버렸지만 그 집 주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의 집들은 그을음 하나없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리가 숙박한 호텔 역시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장로님이 경영하셨는데 종업원도 모두 크리스찬이어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 피곤했

던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 주님.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겨웠다. 이 사건을 통해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그날 오전부터 J족을 녹음했는데 일이 매우 빨리 진척되었다. F족에서 나이트 할머니가 오셔서 이틀 동안 지켜 보셨는데 그분은 H어를 말하지 못했다. 걱정을 했으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고 가장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멋쟁이'라고 찬양하게 되었다.

S족까지 1주일 간의 녹음을 마치고 다시 B시로 돌아와서 하루를 쉬다음 다시 B시 근처 3시간 거리에 있는 M족을 녹음하러 갔다. 산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마치 천사들의 합창이라 여겨졌다. 그곳 또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훌륭한 언어 조력자들이 있어서 메시지 한 시간 분량과 찬양 한 시간 분량을 녹음하여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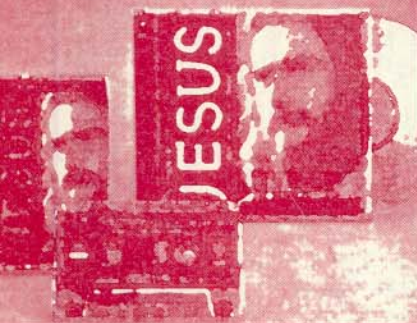
이번 Advance Course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는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도로 좋은 트레이닝 기간이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처럼 복되고 영광된 사역에 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필름과 동역

다른 언어종족들에게
'예수필름'에 대해서
알리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중
가장 영향력있는 것은
영화 "예수필름"입니다.
군래에 와서도 이 영화는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가스펠 레코딩 선교단체의 손에서
문맹인 소수 종족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팀은 영화 "예수필름"을
230개 소수부족 언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원판은 '누가복음'에 근거한 것이며,
레코딩팀은 국제 CCC와 손을 잡고
문자화 되지 않은 언어도 녹음
제작할 것입니다.



"꿀찌 종족" 계획 (I)

네팔의 어느 산중턱에, Lachhuman 종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
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어둠의 길은 두려움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
다. 그곳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 악의 냉기가 뿜어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들을 일컬어 영적 '꿀찌종족'이라 합니다.

누가 영적 꿀찌종족인가?

밤에 굶주린 사람들이 줄서서 급식을 기다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
오. 여러분이라면 큰 수의 무리들부터 급식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는 앞에, 적은 소수 무리들은 뒤에서 기다릴 수밖
에 없고 급식이 떨어지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꿀
찌 종족"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위주해 볼 때, 줄서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 여러 나라
의 종족들, 그리고 그 급식들은 영의 양식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영적 양식은 그들을 전도하고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
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에 줄서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단체들에게서 영적 양식을 소수의 종족들에게 공
급하는 것은 비실용적이고도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
다. 그들의 적은 수 때문에, 그들은 좀처럼 영의 양식을 받을 수가 없
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스펠 레코딩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수민족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명을 주셨
습니다.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부족들에게
기독교에 관해 첫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6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에 관한 확고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에 힘써 영적꿀찌
들에게 나아 가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꿀찌종족계획'이라 부릅니다.

(다음호에 계속)



LIST OF UNREACHED (AND UNRECORDED) PEOPLES FOR IMMEDIATE TARGET IN THE AREAS OF GRN CENTRES

These groups are #1 priority peoples—we are unaware of any existing mission or evangelistic contact with them. Only the primary language is named. The need for recording in the dialects still needs to be determined.

Compiled by Ross Lange—GRN Research & Strategy

LANGUAGE	POPULATION						
BANGLADESH							
1. MEGAM		52. MSER	2,100	63. PUNU	439,000	49. XANTANGA	5,000
2. SHENDU	7,000	53. NDAM	6,500	66. QIANG	130,000	50. ZAYSE	20,000
		54. NOUETE	10,000	87. QIANHANG		51. ZILMAMU	1,000
		55. NIELLIM	1,500	68. RIANO	1,200		
		56. NOY		69. SALAR	87,697		
BURKINA FASO							
1. BLE	700	61. SOMRAI	7,000	74. SOTATIPO		GAMBIA	
2. BOBO DIOLA	9,100	62. SUNGOR	60,000	75. SUI	245,993	1. HANSOANKA	
3. BOLON	10,900	63. TORAM	4,000	76. T'EN	20,000	2. MORI	
4. DAGAARI DIOLA	"Small"	64. ZAN OULA	1,200	77. TSEKU			
5. DUUN	70,000 (in Mali)			78. TU	191,624		
6. FIT'YEDS, BARANI				79. THHA	5,704,223	GHANA	
7. KOROBOKO		CHINA		80. TUVIN	400	1. ABRON	600,000
8. KPATOGO	700	1. AS-CHAM	100	81. U		2. AHANTA	97,200
9. LIORI	4,000	2. AIMEUCE	720,000	82. UTAT	1,000	3. AKPAFU-LOLOBI	14,100
10. MARAWEE	3,000	3. AYU	5,000	83. VO	50,000	4. ANIMERE	2,000
11. MOUJOU		4. BA-PAL		84. YU		5. AVTIME	11,000
12. NGWA	2,200	5. DIAO WEN		85. YERKING	400	6. BOWRI	20,000
13. TALA	4,500			86. YI CENTRAL	258,000	7. CHAKALI	4,000
						8. CHALA	15,000
						9. DWANG	10,000
						10. IYIPI, PESEKA	17,000
						11. KANTISI	2,000
						12. SONI	1,000

또다른 선들러 리스트 - 미녹음종족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사람의 헌신적인 행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오스카 선들러는 그의 용기와 재물을 가지고 대량 학살당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는 배후에서 나치주의자들을 설득하고 조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나오게 하여 그의 무기공장 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의 결과로 수용소에서 집단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가스펠 레코딩 선교단체는 또다른 선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리스트는 선들러의 것처럼 하나 하나가 유사합니다. 우리의 리스트는 문자화 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없이는 그들의 미래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칠 곳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녹음하여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이 종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으로써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시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찬양받으실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로 알려지지 않은 곳들마다, 우리 레코딩 팀들은 그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들러 리스트를 가지고 각 미전도 종족 언어마다 복음을 녹음하며 전할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들중 어떤 분들은 이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에 참여하셔서 소망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십시오.

Colin Stott / GR의 전무이사



ARM게시판



중보기도요청

1. 네팔 복음훈련학교(Nepal FRTS) 제2기가 11월 17일부터 10주간 시작됩니다. 영어 강의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인 복음선교사 지원자를 위한 학교가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진행됩니다. 모든 커리큘럼이 한국어로 번역 중에 있으며, 가스펠 레코딩 홍콩지부 대표 이신 아브라함 정 선교사님이 주강사로 수고 하시고 바나바와 크리스 형제가 보조 강사로, 미키 조 선교사가 통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한국 ARM에서는 우선 중국 55개 소수 부족 9천만명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총인어 307개 부족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복키 위해 한국인 선교사 100명을 양성하여 땅끝 모든 종족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각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2. 한국내에서도 10주과정 복음훈련학교(Korea FRTS)를 개설키 위해 기도중이며 가능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98년 중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으로 Audio 녹음편집 및

Video 촬영편집도 아울러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JOY TALK(수동식 카세트 재생기) 전기가 없는 전세계 땅끝 미전도 종족의 문맹집단 복음화를 위해 가볍고, 작고 경제적인 새로운 디자인의 수동식 재생기 2,500대가 11월 중에 한국에서 조립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① 완벽한 기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호주 기술팀의 품질과 성능인정으로 전세계 25개 지부의 공식 기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② 10여 년 동안 100,000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땅끝 모든 부족들의 마음 마음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③ 한국교회와의 연합사역을 위해

④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4. 네팔 FRTS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 1,500 세탁기 \$ 600
냉장고 \$ 1,000



단행본
기쁨능력(출간예정)

조이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믿음의 근원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놀라운 기쁨의 능력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ARM 출판사)

REJOICE! GIVE THANKS IN EVERY SINGLE THING!

JOY TALK



주님의 필요에 의해 기존의 수동식 카세트 재생기보다 세 배나 작고 가벼운 새로운 재생기가 "조이토크"란 이름으로 제작 진행 중에 있다.

향후 10년 동안 10만대 보내기 운동을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전세계 복음의 불모지인 미전도집단 종족들의 마음 마음마다 그들의 언어로 녹음된 복음메세지 테이프와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지에서 말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영적 병기를 위해 그 제작 과정에 필요한 모든 진행 사항이 여러 동역자들의 중보기도로 보호 받기를 원합니다.

대당 30,000원 예정

복음음반선교회(ARM)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지체로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직접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들의 말로 녹음된 복음음반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명이 주는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